

아픈 역사의 기억들, 흠어진 조각들로 엮어낸 흔적

‘세월호’ ‘제주4·3’ 독립영화로 만나는 한국현대사...GIFT 4월 기획상영회

오는 22일부터 ‘만신’·‘한란’·‘내 이름은’·‘1980 사북’ 연속 편성
박찬경 감독, 광주비엔날레 시민 참여 프로젝트 ‘불림’ 설명회도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저항의 순간들이 독립 영화의 시선을 통해 다시 스크린 위에 펼쳐진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가 운영하는 GIFT광주독립영화관(이하 GIFT)은 4월 한 달간 세월호 참사, 제주4·3항쟁, 사북항쟁을 다룬 독립·예술영화 4편을 상영한다.

세월호 참사 12주기와 제주4·3항쟁 78주기를 맞아 마련된 이번 기획은 특별 상영과 연계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 한국 독립·예술영화가 기록해 온 현대사의 주요 장면들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자리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는 박찬경 감독의 다큐멘터리 ‘만신’(2014)이 특별 상영된다.

‘만신과 불림’이라는 제목으로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제16회 광주비엔날레 GB커미션 참여

작가인 박찬경, 권병준의 시민 참여 프로젝트 ‘불림’의 일환이다.

작품은 ‘우리 시대의 큰 만신’으로 불린 김금화(1931-2019)의 삶을 담고 있으며, 그는 생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위령제를 직접 주재한 바 있다. 영화 마지막 장면인 어린 김금화의 쇠걸립 장면은 ‘불림’ 프로젝트의 핵심 모티프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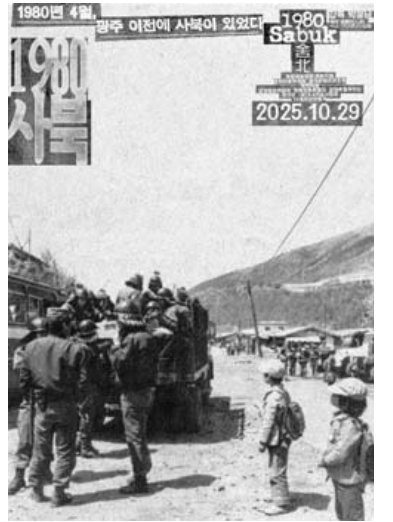
22일 ‘만신’ 상영 이후에는 박찬경 감독이 참여하는 ‘불림’ 프로젝트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프로젝트 개요와 함께 광주·전남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될 예정이다.

제주4·3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한란’도 4월 상영을 이어간다. 지난해 개봉 이후 관객과 평단의 주목을 받은 작품으로, 78주기를 맞아 GIFT에



왼쪽부터 ‘만신’, ‘한란’, ‘내 이름은’, ‘1980 사북’ 포스터



서 상영을 지속한다.

여기에 오는 22일 신규 개봉작 ‘내 이름은’까지 두 작품이 나란히 상영돼 제주4·3항쟁의 기억을 다각도로 비춘다.

다큐멘터리 ‘1980 사북’은 1980년 강원도 사북 탄광 광부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과 임금 문제에 맞서 일으킨 사북항쟁을 기록한 작품이다.

GIFT는 이 작품의 꾸준한 상영을 통해 사북

항쟁을 알리고, 관객과 함께 기억하기를 제안한다.

이상훈 이사장은 “한국 독립·예술영화는 주류 역사 서술이 충분히 다루지 못한 사건들을 꾸준히 기록해왔다”며 “세월호 참사 12주기와 제주4·3항쟁 78주기를 맞아 이번 4월, 그 기록을 광주 시민들과 함께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영 시간표와 작품 정보는 GIFT광주독립영화관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매는 무비예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 예매도 운영한다. 관람료는 일반 1만원이다. 구리·황동·양은·알루미늄 등 금속 소재 물건을 지참한 관객은 ‘만신’ 상영에 한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세대 아우르는 감동...틀 깨 전통음악 향연

전남도립국악단 오는 25일 2026년 정기공연 ‘국악가요 페스티벌’

전통과 대중의 경계를 넘나드는 국악 무대가 남도에서 펼쳐진다. 익숙한 가요부터 깊이 있는 전통 성음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국악 관현악으로 재해석한 공연이 관객과 만난다.

전남도립국악단은 오는 25일 오후 4시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2026년 정기공연 ‘국악가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정기공연으로는 처음 시도되는 페스티벌 형식의 무대로 소리꾼 박애리를 비롯해 조주선, 유태평양, 서진실 등 국내 정상급 국악인들이 함께한다.

전통과 대중을 아우르는 구성으로 국악의 확장된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대는 박천지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의 특별 지휘 아래 전국 국악 관현악 반주로 진행된다.

‘목포의 눈물’, ‘배 띄워라’, ‘사노라면’, ‘희망가’ 등 대중에게 익숙한 곡들을 국악적 색채로 풀어내는 한편, ‘추월만정’, ‘속대머리’, ‘민요 연곡’ 등 전통 성음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도 함께 선보인다.

공연 후반부에는 ‘돈아노나’, ‘열두 달이 다 좋아’, ‘시르렁 실근’, ‘남도 환타지’ 등 현대적 감각을 더한 작품들이 이어지며 다채로운 음악적 흐름을 완성한다. 세대와 장르를 넘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연출을 맡은 이시영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직무대행은 “우리 가락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작품들로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다”며 “익숙한 선율 속에서 새로운 감동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존재와 세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한희원·한생곤 2인전 ‘사유의 두 축’...오는 30일부터 과천 K&L 뮤지엄

경기도 과천 K&L 뮤지엄에서 지역 작가 한희원이 참여하는 특별전 ‘사유의 두 축’이 열려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한희원과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작업해온 한생곤의 2인전으로, 서로 다른 회화적 접근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함께 조망한다.

두 작가는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인간과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서 작업을 출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번 전시는 이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회화적 탐구를 통해 ‘존재’와 ‘세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을 대비해 보여준다.

한희원의 회화는 두꺼운 질감과 거친 붓질이 특징이다. 화면에 남겨진 흔적들은 감정과 시간의 축적



한희원작 ‘봄, 생명’

을 드러내며 삶의 고독과 희망, 다양한 정서를 담아낸다.

전시에서는 민중미술 시기의 초기작부터 존재에 대한 질문을 담은 중기 작업, 최근의 평온한 분위기로 나아간 작품까지 약 40여 년에 걸친 작업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한생곤은 선과 기호, 여백을 바탕으로 화면을 구성하며 세계의 질서와 관계를 표현해왔다. 그의 작품은 화면을 넘어 가듯 바라보게 하며, 개인과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유하게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주적 관계를 표현한 ‘삼라사리즈와 ‘산수’ 연작, 최근 ‘주

역’ 연작까지 주요 작업이 함께 소개된다.

전시는 오는 30일부터 8월2일까지 이어진다.

/최명진 기자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

